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4. 25.(화) 10:00

“청년들에게 필요한 저출산 정책은 주거 지원과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

-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에서 219명 청년들의 저출산 정책 제안 청취 -
 -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분야는 ‘주거 지원’ -
 -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이 그 뒤를 이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와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토), 23일(일) 이틀 동안 KBS 스튜디오 별관에서 2030 청년 219명이 참여하는 「2023년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 청출어람단 : 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제안단

당초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청출어람단 토론회에는 총 219명의 2030 청년이 참석했다.

첫째 날인 4월 22일(토), 청출어람단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저출산 현황 및 원인 진단」), 홍석철 제8기 저고위 상임위원(「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정해진 미래를 바꾸는 인구정책」) 등 세 명의 전문가 발제를 들었다.

전문가 발제 이후, 청출어람단은 10명씩 구성된 20개의 분임으로 나뉘어져 세 개 주제인 ▲높은 주거비용 등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 요인 해소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비용지원과 돌봄 제공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한 제도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대한 세 번의 분임 토의에 참여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 ①주거 지원, ②자산 형성 지원, ③일자리 지원, ④임신·출산 지원, ⑤돌봄서비스 지원, ⑥양육비용 지원, ⑦아동 건강 및 의료 지원 ⑧취약계층 아동 지원, ⑨일·육아 병행 제도 내실화, ⑩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청년들은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 개인의 힘만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또한 청년들은 영유아, 맞벌이, 한부모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하교 후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급감하는 점을 지적하며, 초등돌봄의 확대를 건의하였다.

아울러 ‘일·육아병행’이 가능하도록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육아휴직제도의 확립, 육아기 단축 근무 등을 다수 건의하였다.

둘째 날인 4월 23일(일)에는 전날 논의된 저출산 의제와 관련하여 보완이나 신규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네 번째 분임 토의를 진행하며 정책제안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녹화·편집되어 오는 5월 5일 KBS 1TV를 통해 특집 방송될 예정이며, 토론 결과는 향후 ‘청년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들의 일정 동안 토론회의 전 과정을 지켜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폐회 인사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 여러분은 우리 시대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즉, 현자”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청년 여러분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검토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출어람단 상세 내용 2. 행사 사진

담당 부서 <총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일열 (02-2100-1240)
		담당자	전문위원	최윤영 (02-2100-1246)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선영 (044-202-3370)
		담당자	사무관	유수희 (044-202-3691)

청출어람단 참석자 219명 중 남성은 50.2%(110명), 여성은 49.8%(109명)이고, 이 중 80명(36.5%)이 비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비수도권 출신인 청년이었다.

저출산 정책제안 토론회(분임토의, 전체토의)에서 나온 주요 의견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분임 토의는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 요인 해소(의제분야 ①~③)’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청년들은 개인의 힘만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 지원 선택권 확대 ▲수혜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하였다.

두 번째 분임 토의는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비용지원과 돌봄제공(의제분야 ④~⑧)’으로 진행되었다. 영유아, 초등, 맞벌이, 한부모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며,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하교 후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급격히 감소한다며, 초등 돌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세 번째 분임 토의에서는 ‘일·육아병행이 가능한 제도 및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의제분야 ⑨~⑩)’에 대해 논의하였고, 청년들은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 프리랜서 등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육아휴직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육아기 단축 근무, ▲일·육아 병행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다수 건의하였다.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청년들은 이틀간의 토의 내용을 모아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평균소득, 맞벌이 부부 평균 소득 등을 고려하여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초등 돌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일·육아 병행제도의 실질적 사용을 위해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육아기 단축근무 등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날 토론에는 청출어람단 외에도 방송인 김미려·크리스 존슨·이용주 씨와, 방송에 출연하여 화제를 모은 네쌍둥이 부모 김환·박두레 부부, 그리고 휴직 간호사 김민소 씨가 참여하여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한편, 네 개의 분임 토의 전·후로 청년들에게 ‘저출산 대응을 위한 10개의 주요 정책 분야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분야’를 묻은 결과, 사전·사후 조사 결과 모두 ‘주거 지원’이 첫 번째였으며,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가 그 뒤를 이었다.

- * (사전 조사) ①주거지원(24.2%), ②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19.6%), ③양육비용 지원(11.4%), ④청년 대상 일자리 지원(11.0%), ⑤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10.0%)
- * (사후 조사) ①주거지원(32.0%), ②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14.2%), ③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9.6%), ④청년대상 자산형성 지원(9.1%), ⑤청년대상 일자리 지원(9.1%)

주거 지원을 1순위 과제로 뽑은 서울 거주 30대 청년은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가 있어야 청년이 자산 형성과 결혼·출산·육아를 계획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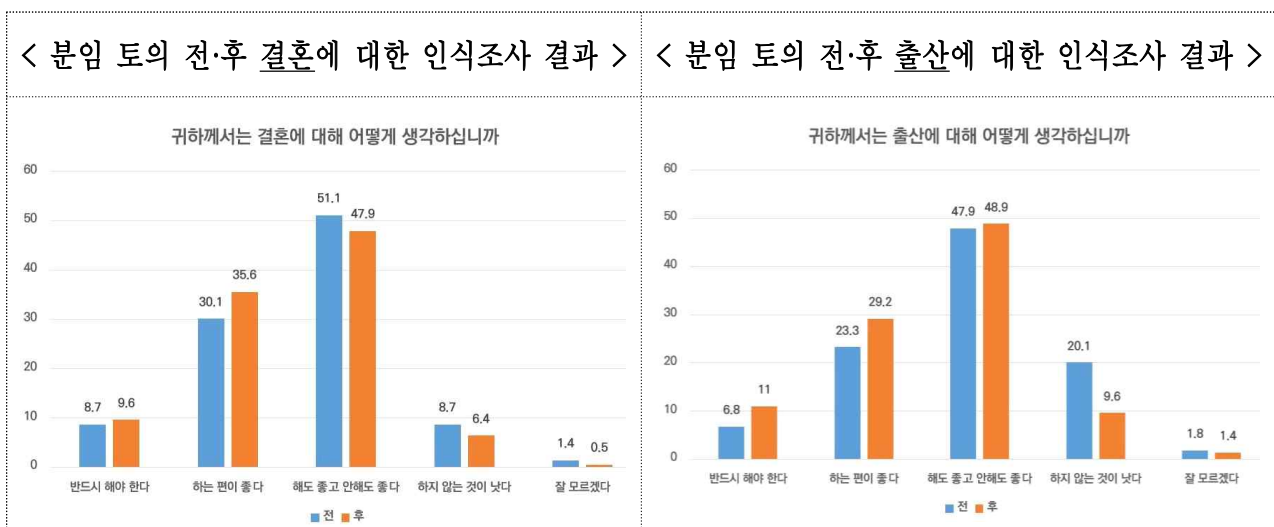
2순위, 일·육아 병행 제도 내실화를 뽑은 경기 거주 30대 청년은 “돌봄 교실이 있기는 하지만 당첨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어 결국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기업에서 눈치를 주지 않도록 정부가 혜택을 줘서 일과 육아가 병행될 수 있는 사회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에 거주 중인 청년들은 “좁은 공간에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수도권 집중 현상의 완화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저출산 대응 정책의 수도권 편중과 지방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이틀 동안 토론회를 겪으면서, 청년들의 결혼·출산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8.7%에서 9.6%로 0.9%p 증가하였고, “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30.1%에서 35.6%로 5.5%p 증가하였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8.7%에서 6.4%로 2.3%p 감소하였다.

또한, “출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8%에서 11%로 4.2%p 증가하였고, “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23.3%에서 29.2%로 5.9%p 증가하였다.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20.1%에서 9.6%로 10.5%p 감소하였다.



청년들은 “청출어람단” 활동을 통해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다함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다 보니, 막연하고 두렵게 느껴지던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생각들이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